



여자는 땅 남자는 공기

이유명호/남강한의원장, 대한어한의사회 부회장

남자는 성기가 바깥에 달려 있으니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자궁이 몸속에 있으니 집안일을 한다고 하는 학설을 혹시 아시는지? 남자는 성행위때 위에서 하고 여자는 아래에서 하니까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라는 학설도 있는데 역시 들어 보셨는지?

남자는 하늘이니 받들라고라

음양오행설에서 <남자는 양이고 하늘이다 여자는 음이고 땅이다> 라고 은유를 한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하늘같은 남자타령으로 여자들의 인권을 짓밟는 일들이 여전하다. 그래 놓고 이를 성차별의 근거로 삼고는 <음양의 이치>니까 어쩔수 없다고 한다.

정답은 이렇다. 튼튼한 뼈에 근육이 발달한 남자는 들에서 일을 하여 힘을 밖으로 발산하기 때문에 <여자보다 양적>이다. 생명을 잉태하고 길러야 하는 출산과 양육을 위해 모든 기운을 안으로 끌어당겨서 축적하는 여자는 <남자보다 음적>이다.

이런 차이를 차별로 만드는 억지를 좀 창피해 할 줄 알아야 한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힘쓰는 일을 기계가 한 지 오래이니 물리적인 근육의 힘보다 지적이고 감성적인 두뇌와 창조성이 더 중요해졌다.

잘났네 못났네 우열을 따지지 말고 조화롭게 음양이 사귀면 안되지?

여자가 땅이라면 남자는 공기정도로 정정한다. 양은 위 밝음 상승 원심력 이런 기운을 분류하여 하늘과 남자를 연결시키는데 그 하늘은 대기라고 불러야 옳다. 남자들이 말하는 하늘은 땅의 구

심력으로 우주로 흩어지지 않고 돌고 있는 <대기층>정도라고 정정해야 한다.

음기운은 뭉치게 하는 구심력으로도 비유한다. 그래서 땅은 모든 생명을 끌어 안고 하늘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고 있다. <남성상위>체위는 생명을 탄생시키는 어머니인 땅쪽으로 즉 중력의 방향으로 반쪽씨를 뿌려야 번식이 되기 때문에 생긴 결과이다. 여자를 지구라고 한다면 사람은 땅에서 나고 땅에 붙어서 산다. 사람이 하늘에 등등 떠서 사나? 그리고 땅값은 계속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다. 여자들 이제 기죽지 말고 땅따먹거리며 살자.

남자도 하늘인 척 힘들다.

“걸핏하면 남자니까 무거운거 들고라고 해. 나도 알고 보면 약해.”

“남자는 울면 안돼, 엄살도 떨지마, 약한척도 용서 안돼.”

“돈은 가장인 당신이 벌어야와야해. 당신이 남자인니까.”

“아들인 네가 집안의 장손이니까 집안일도 부모노후도 동생도 알아서 책임져라.”

자. 그럼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남자들에게도 좋은가? 아니, 그건 아니다 라는게 공통된 이구 동성. 한국남성들, 부당한 호주제에 억눌려 가장이란 이름으로 부과되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그 중년 사망률이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그래서 인류학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 이제 열린 사고를 가진 여성과 남성들이 이 불공정한 룰을 바로잡아 병든 사회를 치료하고자 한다. 남자들도 하늘도 아니면서 하늘인 척 헛폼 잡기 피곤하다. 무거운 짐을 여성들과 같이 사이 좋게 나누어 지고 싶어한다. 그 소원 접수해서 들어 주자. **이명호**